

'94 제1검정소 최우수농장상 수상농장

세 왕 축 산

취재 : 김 동 성

지난 1년동안 제1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한 종돈장중 검정성적이 가장 뛰어나 최우수농장으로 선정된 세왕축산(대표 : 주원상,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산 10번지, 전화 : 0357-31-7702, 7703)을 찾았다.



▲ '94 최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주원상사장(가운데)이 박성완 부사장(우)과 양상렬 부장(좌)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왕축산은 제1검정소가 지난해 출품된 검정돈을 대상으로 챔피언 배출횟수, 선발지수, 합격두수, 합격률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총 261.1점을 획득, 최우수농장에 선정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챔피언돈 5회, 평균 선발지수 214점, 합격두수 162두, 합격률 69.1%를 기록했다.

백색계통은 영국산, 유색계통은 캐나다산으로 기초축 구성

세왕축산이 '85년에 처음 양돈업을 시작한지 꼭 10년째 되는 해에 최우수농장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농장 특유의 종돈개량방법과 농장경영 노하우, 경영주와 종업원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원상사장 부친 때부터 2대에 걸쳐 20년이상 축산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왕축산은 종돈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백색계통인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를, 캐나다에서 유색계통인 듀록 200여두를 도입, 기초축으로 삼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종돈선발은 오판상 등에 맡긴 것이 아니라,

주원상사장 등 농장관계자들이 외국의 종돈장을 직접 방문, 선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연히 능력이 우수하고, 지체가 강건한 것 등 외모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을 선발했다. 선발비율은 랜드레이스 20%, 대요크셔 60%, 듀록 20%로 했다. 이때부터 비육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체계적인 종돈개량에 돌입, 순종만 생산하는 종돈장으로 탈바꿈했다.

이 농장의 종돈개량방법은 철저한 개체 및 군사검정과 농장 특유의 선발기준을 적용한 종돈선발, 인공수정을 통한 개량속도 가속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종돈장의 생명인 질병 없는 위생적인 종돈보급을 위해 돈사의 동 단위로 완벽한 울인, 울아웃을 시행하고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차단은 물론, 질병의 태아감염 방지를 위해서도 인공수정을 이용하고 있다. 인근에 양돈장이 없는 것도 종돈장으로서 좋은 입지조



▲ 모든 차량과 출입자는 철저한 소독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장입구에 설치된 소독조)

건이 아닐 수 없다.

농장 특유의 선발방식 기준으로 종돈 선발

종돈선발을 포유중에 1차, 이유할때 2차, 검정 개시할때 3차, 검정종료후 4차 등 4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때는 균일도를 중심으로 보고, 2차와 3차때는 이유체중과 사지상태, 생식기, 유두 등 외모를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3차선발까지 합격한 종돈은 모두 검정을 하는데, 수태지는 개체 검정을, 암태지는 군사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종료후 최종선발을 하는데 수태지는 100kg 도달일령과 동복의 균일도, 등지방두께, 정육률, 지체, 유두 상태 등 외모를 농장에서 정한 점수 산정방식에 의해 평가한 후 선발한다. 동복의 평균 성적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동복의 성적이 좋아야 점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한 결과 검정소에서 동복이 동시에 챔피언에 선정되는 경우가 6두나 되었다. '93년 6월부터 검정소에 출품을 한 후 11두의 챔피언중 6두가 동복이었던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을 나타내준다. '93년에는 출품돈의 합격률이 93%에 달하기도 했다.

암태지 선발은 특이한 이 농장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암태지도 종합점수 방식으로 선발하는데, 평가항목은 어미태지의 산차와 생식체중, 이유체중, 복당 이유두수, 포유기간이다. 각 항목별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검정성

적과 함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종돈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80점 미만은 비육돈으로 팔려나간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미의 산차가 3산차이면 0을 주고, 1산차이면 3점, 2산차는 2.5점, 4산차는 2.0점 식으로 농장에서 정한 산차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항목도 이와 유사하다.

철저한 동 단위 올인, 올라웃으로 위생적인 종돈 생산

또한 농장관리는 올인, 올라웃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돈사는 보통 10개 돈방과 30개 돈방이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병차단을 위해 모두 올인, 올라웃을 실시한다. 올인, 올라웃을 위해 돈사시설이 7천두 규모인데도 현재 수용두수는 4천5백두에 불과할 정도이다. 자돈사의 경우 전출후 1개월 이상 비워둔다. 물론 질병차단 때문이다. 또한 모돈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질병감염 방지를 위해 80%에 대해 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다. 수정률은 자연교배와 비슷하다. 인공수정은 질병 콘트롤 뿐만 아니라 우수유전자를 후대에 빨리 전달할 수 있어 종돈개량을 촉진해 준다.

세왕축산은 앞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모돈 1,0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최신시설로 신축, 세계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일과후 컴퓨터교육과 영어회화 교육도 시키고 있으며, 매일, 매주, 매월 평가회와 사내 교육도 하는 등 직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농장이 바로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투자가 바로 우수종돈을 생산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이 주원상사장과 박성완 부사장의 설명이다. 세왕축산은 주원상사장은 “이번 최우수농장 선정을 계기로 국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종돈장으로 남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투자는 물론,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